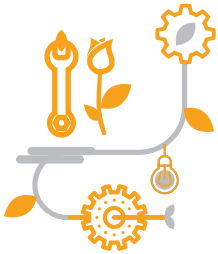
2018 노동영역 이야기



하고 싶은 일 마음껏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회

노동이 삶의 재미와 의미로서 자리 잡길 희망하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합니다.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에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 노동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영역기금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과 삶이 조화로운 함께 사는 사회로의 변화를 지원합니다.

세상을바꾸는작은변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2018 노동영역으로 만든 작은변화

함께 한 기부자 84 명

정기기부자 93%

일시기부자 7%

함께 한 나눔 16,729,000 원

개인기부금 96%

기업기부금 4%

정기기부금 96%

일시기부금 4%

주요 지원사업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 지원사업 | 변화의시나리오 노동영역 프로젝트 등

지원금액 : 총 929,879,889 원

개인 지원 502명

단체 지원 10개

함께 만든 변화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 지원사업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는 한부모여성이 사장님이 되어 경영하는 가게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담보와 보증이 없어도 자립의지가 강한 한부모여성들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합니다. 상환금은 또 다른 여성 가장의 희망가게를 여는 데 쓰입니다. 희망가게는 2004년 1호점을 시작으로 370호점의 가게를 열었으며,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한부모여성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이 사업은 ㈜아모레퍼시픽 설립자의 유산기부로 조성된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진행하며, 전국 사업으로 대전마을기업연합회, 대구커뮤니티와 경제,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부산광역자활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48명

지원금액
809,863,182원

창업자금 4천만 원 대출 지원 (연이자 1%, 3개월 거치기간 8년상환)
매장 오픈 컨설팅 (전문컨설턴트 상권 및 입지분석, 경영컨설팅 등)
한부모여성을 위한 통합지원 (재무교육, 법률자문,
공공주택컨설팅,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2018년 5월 12일 '제 1회 한부모가족의 날'에서 '희망가게' 상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부모여성 창업과 희망가게 지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부모 여성가장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합니다.

함께 만든 변화

변화의시나리오 노동영역 프로젝트

아름다운재단 8대 영역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의 공익활동을 발굴,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사회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노동영역의 시범적이며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 공익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6개 단체

지원금액
109,501,813원

단체 당 최대 2천만 원,
모임 당 최대 500만 원 지원

노동조건의 벽 허물기

_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의 이미숙 대표, 조영신 변호사, 유월 활동가 (왼쪽부터)

민주노총의 '2015 전국 공단 노동실태'에 따르면 반월사회공단은 전국 8개 공단 중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파견 노동자 12만명 중 2만 명(약 16%)이 두 공단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조 조직률도 전국 최저인 1%(전국 평균 10%)에 불과한 곳입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어 있는 이곳에서 월담은 6년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자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 후속조치까지 진행하며 숨 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희망가게로 연결된 삶의 지원자

_전수창업 지원 한기숙, 김주희 대표

한부모여성 창업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로 성공한 선배 창업주가 후배 창업주에게 사업아이템과 기술 및 운영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부모여성 전수창업 지원사업'으로 사업 이수자에게 창업자금과 창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충청권에서, 2018년에는 수도권에서 두 매장이 오픈하였습니다.

손세차로 희망가게 창업한 김주희 대표

"창업하면서 달라진 거요? 이번에 우리 딸이 전국노래자랑 대상까지 받았잖아요."

딸 이야기가 나오자 김주희 대표의 얼굴이 환해진다. 희망가게 지원을 받아 손세차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그녀에게 찾아온 변화는 크다. 정기적인 수입이 생긴 건 물론이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 세 명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다. 덕분에 딸의 노래자랑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었다며 환히 웃는다. 올해 열네 살이 된 딸은 얼마 전 전국노래자랑에서 모모랜드의 '뿜뿜'을 불러 대상을 탔다.

든든한 전수자 한기숙 대표

현재 그녀는 정기적으로 70여 대의 차를 손세차하고 있다. 그녀의 이런 안정적인 창업 뒤에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다. 바로 전수자인 한기숙 대표다. 한 대표 역시 12년 전 희망가게 지원을 받아 자본 없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손세차업을 시작했다. 투잡을 뛸 때보다 벌이도 좋았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덕분에 지난 12년간 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망설임 없이 추천하고 싶은 일이다.

종일 지하 주차장에서 해야 하는 손세차 일은 생각보다 고되다. 그런데도 이 일을 하겠다고 덤벼든 이수자 김주희 씨는 누구보다 씩씩했다. 작년 여름 두 달 동안 38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주희 씨는 불평 한마디 없이 배움에 임했다. 한 대표는 그 모습에 반하고 말았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직원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닮은 튼튼한 사람이 왔다고."

교통사고 때도 한달음에 달려온 든든한 지원자

주희 씨에게 한 대표는 기술 전수자일 뿐 아니라 삶의 든든한 지원자이다. 한 달 전 주희 씨가 교통사고가 나 일주일간 입원했을 때도 달려온 한 대표였다. 그녀는 금천구에서 주희 씨가 일하는 강서구 빌딩까지 매일 30분을 달려와 대신 차를 닦아주었다. 새로 시작한 일에 혹시라도 흠이 잡힐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한 대표에게도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건 마찬가지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생기니 사업을 하면서 부딪치는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좋다. 무엇보다 희망가게 창업주들과는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여성으로서 연대하면서 느끼는 위안과 기쁨이 크다.

"희망가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많아요. 다들 고맙다고, 앞으로도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하자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노동영역’의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를 만든 기부자님,
참 고맙습니다!

강현희	김민정	김양영	김태수	박지선	손수정	윤경아	이제훈	조두라	최재원	황규복
곽명훈	김봉하	김영철	김태형	박현정	송재순	윤미현	이해열	조원식	한경옥	황윤희
구보경	김상택	김오미	김현석	배주석	신영재	윤소정	이혜원	조윤실	한은일	황해상
권병수	김상현	김욱	김희경	백명선	신은정	이경재	장인섭	조은연	한진선	(주)호원스틸
권처진	김석영	김장영	나대호	변상필	신현길	이동석	장지연	주현정	허세정	
김관웅	김수희	김정민	도윤희	서동욱	안사채	이명화	정봉화	채현철	현경화	
김남인	김신태	김정주	두승환	성은정	엄광순	이재영	정영준	최근우	현지애	
김민섭	김아름	김준희	박광식	손병운	엄원종	이재훈	정일영	최용훈	홍석경	